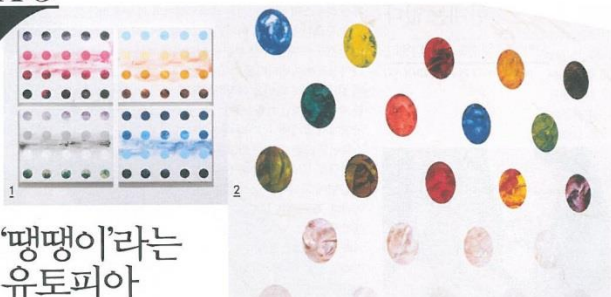


'땡땡이'라는 유토피아

January, 2017 | 권은경 에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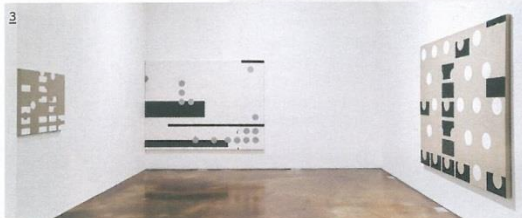
WHO



'땡땡이'라는 유토피아

모더니즘 미학을 비틀던 화가, 김용익의 개인전이 열린다.

photos by JOE YOUNG SOO



1, 2. 2016년 작 '유토피아' 시리즈. 3. 국제갤러리 설치 전경.



목표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회에서 억눌려 있는 다른 측면을 깨내 보여줌으로써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과 대리 만족을 주는 거다.

얼마 전 일반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했다. 당시 '아무 의미 없는 의미'를 추구한 20여 년 전 땡땡이 작업을 미술관에서 다시 보니 오랜 세월의 저가 보여 흥미롭다고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 과거에는 내 땡땡이 작업이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다. 땡땡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여다보려는 이가 많았고, 결국 의미를 못 찾으니 이해가 안 된 것이었다. 나도 하고 싶은 걸 본능적으로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 요즘 미술학도나 젊은 층은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저 땡땡이가 강박하고 좋다고 받아들인다. 세대의 문제, 가류의 변화다. 이를 거침없게 말하면 시대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오랜만에 신작을 그리며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한 작가가 회고전을 하고서도 될 뻔 해볼 수 있을지, 내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이번 개인전에 걸린지 않았지만, 신작으로 가장 처음 작업 한 것의 제목이 '25년 전의 땡땡이'를 지금 하면 어떤 작업이 나올까? 여태껏 나는 작가로서 미학적, 정치적, 윤리적인 면 등등 모든 점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짴 사람이다. 최근 들어 무거운 이념의 무게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인지, 신작을 해놓고 보니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확실히 보였다. 예전의 땡땡이는 완가라고 감추는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이번 땡땡이가 스스로 발언을 하는 긍정적 의미로 나섰다는 점이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김용익에게 땡땡이란 뭔개? 모르겠다.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과거의 땡땡이는 나에게 분명했다. 모더니즘 회화를 그리고자 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땡땡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니,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붙잡고 더 써줘야 한다. 개인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갤러리 2층에 있는 작품들 좀 더 즐겨주시길 좋겠다. 1층에는 신작이더라도 여전히 무거운 기운이 있는데, 2층의 작업이 미래 쪽으로 열려 있는 편이다. 그리고 어려운 주문이 되겠지만, 밝고 경쾌한 가운데 땡땡이 모를 허무함도 느꼈으면 한다. 땡땡이라는 무늬 자체가 사실 아주 공허하다. 의미가 없는 무늬지 않나?

에디터 | 권은경

(W Korea) 예전부터 스스로를 '늘 무거운 인식론적 질문을 하는 괴로운 타인의 미술가'라고 했다.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왜 사는가와 비슷한가? **김용익** 인생이 수수께끼 같다면, 미술은 그보다는 조금 덜 수수께끼 같다. 평범한 직장인도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때로 자문한다. 이미 일가를 이룬 예술가가 아직도 '왜'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고 하면, 김 일은 젊은이들은 어떡하나? 그 답을 찾는 순간 작가로서는 사망이라고 본다. 좋게 말하면 '완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결장'이다. 왜 미술을 하는가. 미술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예술가가 계속해서 창작해갈 동력을 상실하는 셈이다. 평생에 걸쳐 질문해왔으니 그 여정의 양상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겠다. 나이 들면서 주로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 젊을 때는 스스로에게 전방위적 질문을 했다.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인문학적 포스트는 필적, 정치적-심리적 포스트는 필적, 말 그대로 각 방향에서 질문을 해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질문의 폭이 좁아진다. 여러 질문 중 몇 가지는 포기하게 된다. 치열한 사색과 통역이 떨어지나가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렇게 변한 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어땠나? 한편으로 편안한 마음이 컸다. 편안하다는 것 자체도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계속해서 자신을 불안한 상태로 들고 나가고 세상과 불화해야 하는데, 그게 창작의 동력인데,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다. 미술을 시작한 이후 인생에서 맞이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나? 대학교 4학년 때 스승 박석보를 만난 것이 화가 인생의 첫 번째 순간이다. 그분의 도발 때문에 70년대 당시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할 수 있는 단색화의 핫한 미술 현장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었다. 그분이 내 작업을 흠평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으니 중요한 계기다. 그다음 윤희영 선생을 만난 것도 하나의 계기다. 그분이 가천대(당시 경원대) 총장이 되면서 나를 교수로 픽업했다. 아무래도 흥미나 사울대 미대 같은 메이저와 다른 기운이 있었고, 덕분에 내 방향도 미술 현장과는 조금 벗어난 쪽으로 회고해진다. 김용익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 키워드를 먼저준다면? 모순. 나는 모순적인 것의 기묘한 동거를 추구한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경쾌함, 심각함과 유머 등이 결합하는 순간. 앙코르와트의 부처상에 오랜 세월이 걸쳐 자란 덩굴이 엉켜 있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자연의 힘이 얽힌 일케니한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삼반면 요소를 지니고 살아갈 텐데, 세상에 통용된 질서에 따라 그중 하나는 누르고 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술가의